

# '25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4	4.16	회의실	9/12	4	1	14	○	-	-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박양우·유한별·이경주·이숙희·장은백·정인영·정희(9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3	0	2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대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의 공약, 주요 정책, 국가시데이터센터 문제 등에 대해 다뤄주길 바람(박양우)	<빛나는 나의 도시> 잇단 공약 발표 주목할 지역 현안은?(4.23), <뉴스투데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 호남 유세 집중(4.25), 강기정 “민주 후보들 ‘광주시육성’ 한 목소리”(4.25), 이재명 “호남 발전 설계도가 있다”(4.29), “AI·미래차·바이오클러스터를 지역 핵심산업으로”(5.9) 등 방송 조치	'25.4.
"	무안공항 참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길 바람(김동진)	<시사용광로>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문제점과 대책(4.17), <뉴스투데이> 정부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현황조사 착수(4.28) 늦어지는 제주항공 진상규명··유족들 반발(5.8) 등 방송 조치	"
"	대선 관련 지역소멸 대응, 의료·교통 인프라, 산업전환 문제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보도 및 시민 제안 의제 중심 토론 프로그램 바람(이경주)	<뉴스투데이> 광주·전남·북기자협회·연구원, 대선 호남공약 발표회(4.24), 차기 정부, 획기적 호남 공역 발전 공약해야(4.29) 등 방송 조치	"
"	기후 위기 기술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조명해주길 바람(이숙희)	<뉴스데스크> ‘재생에너지 차별’ 한국 전력공사 공정위 신고(4.24), <뉴스투데이>, 신안 해상풍력 본격화··국산화로 지역도 활기(4.24), 중단된 시민참여형 학교발전소(4.24), <뉴스데스크>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4.22) 등 방송 조치	"
"	지자체에서 대선공약으로 바라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해 주길 바람(장은백)	<뉴스투데이> 전국 시장군수 ‘지방분권 강화’ 대선 공약 제시(4.23), “차기 정부, 획기적 호남 광역 발전 공약해야”(4.29), “반드시 인공지능 특화도시로”(5.2), <5시 뉴스>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대선 공약 채택 촉구(5.9) 등 방송 조치	"
"	의료 공백 문제를 일시적 사건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료 취약지 선별검사 체계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있게 조명하길 바람(정인영)	<뉴스데스크> 지역 의대, 대규모 유급 현실화 되나(5.7) 등 방송 조치	"
"	탄핵 이후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주길 바람(정희)	<뉴스투데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소비심리·기업심리 침체(4.29), <뉴스투	"

		데이> 탄핵 이후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는(4.29), <뉴스데스크> 새 대한민국은 어디로?(4.25) 등 방송 조치	
교양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 소개 바람(강필오)	<빛나는 나의 도시> 나주 여행이 끝장나주(4.23), <뉴스투데이> “봄꽃 보러 왔어요”(4.28), 광주전남 지브리 감성공간(4.24), 화순적벽 버스 관광 오늘부터 운영(4.23), <뉴스데스크> ‘황금연휴’ 시작·지역 축제 ‘풍성’(5.2) 등 방송 조치	”
”	5.18, 민주주의 조명 역할 바람(강필오)	<특별기획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 제작 방송(4.19), <뉴스투데이> '푸른논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45년 만에 광주시민된다(4.19), <뉴스데스크> 두 번의 계엄·기억과 현재의 연결(4.25), <시사용광로> 광주와 K-민주주의(5.1), 대한민국 정치와 오월정신(5.8)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우리들의 광주 금남로 관련,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바람(유한별)	<특별기획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 산 자여 따르라>(4.19), <빛나는 나의 도시> 소년의 길(5.14) 등 방송 조치	”
기타	TV 다시 보기 목록에 방송 날짜와 간단한 제목을 함께 표기해주길 바람	프로그램 정보 업로드 조치	”
”(시청자의견)	뉴스 진행자의 말투, 억양이 진행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모니터링 강화 조치(4.28)	”
”	도심 공동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 계속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도심 속에서 목장 체험 행사 열려(5.3), 대목에도 웃지 못하는 자영업자들(5.6), <시사특라이브> 지하철 2호선 공사 주변 상가 및 주택 피해 대책은(4.29)	'25.3
합계		13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공약, 주요 정책, 국가시데이터센터 문제 등에 대해 다뤄주길 바람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을 적극 발굴해 의제화시키겠음	○		
"	무안공항 참사 다양한 측면에서 폭 넓게 다루길 바람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음	○		
"	대선 관련 지역소멸 대응, 의료·교통 인프라, 산업전환 문제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보도 및 시민 제안 의제 중심 토론 프로그램 바람	호남지역 주요 현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타 지역 사례를 적극적으로 비교해 나가고,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	기후 위기 기술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조명해 주길 바람	기후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음	○		
"	지자체에서 대선 공약으로 바라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해 주길 바람	지역의 중요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	의료 공백 문제를 일시적 사건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공공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료 취약지	의정 갈등이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책 마련을 위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선별검사 체계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있게 조명하길 바람	노력하겠음			
"	탄핵 이후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람	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 도해나가겠음	○		
교양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 소개 바 람	<빛나는 나의 도시>, <테마기행 길> 등 정규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계속하겠음	○		
"	5.18, 민주주의 조명 역할 바람	다양한 보도와 프로그램, 캠페인 등 을 통해 5.18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명하는데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우리들의 광 주 금남로 관련, 더 깊이 있는 이 야기를 바람(유한별)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		
기타	TV 다시 보기 목록에 방송 날짜와 간단한 제목을 함께 표기해주길 바 람	홈페이지 운영을 다시 한번 점검하 고 반영하겠음	○		
" (시청 자의견)	뉴스 진행자의 말투, 억양이 진행 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해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4월)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동진 · 박양우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위원(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바쁘신 중에도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참석 위원님,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감사드립니다. 4월 3일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중요한 시기 맞고 있다. 국외적으로도 보면 대미, 대중 관계에 있어 주변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 있다. 이런 과정에 광주MBC가 보도, 콘텐츠, 제작 등 여러 분야에서 제 역할 하고 있어 고맙다. 2025년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4월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박양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광주MBC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청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3월 20일, 21일 <아시아 탐 밴드> 시즌2를 방송했다. 유튜브 콘텐츠 <더 프레지던트> 김동연, 김부겸 편 업로드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에 <두근두근 동창회>, <우리 고향 부탁해> 등 두 편이 선정됐다. <테마기행 길> 광산구 편을 4월 11일 방송했다. 핵심사업인 <영산강 그란폰도>를 4월 26일 개최해 생방송한다. 라디오 개편 회의를 한다. 5월 6일 개편이 목표다. <더 프레지던트>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도원, 안귀령, 박구용 편 등을 준비한다. 5월 2일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가요베스트> 녹화를 5월 2일 할 예정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4월 2일 있었던 담양군수 재선거의 법정 토론방송을 주관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서서 선거를 치렀는데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다 5.18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를 준비 중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 시들만 묶어 시로 스토리텔링한 다큐멘터리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제작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다음카카오에 광주MBC 뉴스가 입점했다. 네이버 포털 입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입점을 통해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전재료를 받는다. <시사용광로>는 지난 한 달 동안 네 차례 방송했는데, 탄핵과 대선을 주제로 집중적으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6.3 조기 대선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대선공약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공론화, 의제화 하는 작업을 하겠다. 올해는 선거가 한창 뜨거울 때 5.18 기념식이 들어 있어서 여야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기획보도나 취재에 있어 철저히 준비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4월 11일 방송한 <테마기행 길> 빛의 도시 광주 광산구를 더불어 걸어 '봄' 편에서는 최주봉과 함께 광산구의 다양한 길을 걸으며 광산구의 매력을 알려 줬다. 유튜브를 통해 구민들에게 광산구의 정책을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광산구청 미디어팀과의 유쾌한 만남부터 시작해, 1,000원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 송정역 시장의 상추튀김과 떡갈비 골목, 젊음의 거리에서 핫 플레이스를 즐기고,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 문화 체험 및 이국적인 음식의 매력을 나눠줬다. 윤상원 열사의 길을 걸으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월봉서원에서 고봉 기대승 선생의 철학을 배우며 역사를 탐방하였고, 마지막으로 꽃계장 거리에서 밥도둑과 양봉원에서 꿀맛을 느끼며 광산구의 맛집, 특징, 역사를 알려줬다. 단순하게 지역을 소개해 주는 방송을 넘어, '길 위의 구청장'이라 불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산구의 역사와 정책 방향까지 알려주셔서 더욱 유익했다. 윤상원 열사 외에도 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5.18이나 민주주의를 조명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 TOP 3' 편에서는 광주에서 맛볼 수 있는 바게트 안에 달걀 샐러드를 가득 채운 공룡알 빵과 벌꿀을 활용한 음료인 허니 브리즈, 아귀 순살을 튀

겨낸 바삭하고 식감 좋은 아귀 후라이드를 소개했다.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먹거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식 관광을 촉진해 주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폭삭 속았수다! 광주·전남 촬영지’ 편에서는 제주도가 배경이지만, 주요 촬영지 대부분이 광주·전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주인공들의 발길이 닿은 전남대 캠퍼스, 광주극장, 별교 공용 버스터미널 촬영지를 소개했다. 드라마의 감동을 되살리며 지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려 줬고,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켜 공감을 끌어내 줬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

- 김동진 위원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지킨 사람들에 관한 뉴스는 정말 따뜻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무대 뒤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이들과 유가족들과의 하나 됨을 연결하는 내용이 좋았다. 특히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에서 이를 다룬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어주면 좋겠다.
- 박양우 위원장 : -4월 9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첫 번째 뉴스인 “지역전략산업 발굴은 후보 뭉친데-공약 채택 읍소하는 지자체”는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발전 공약에 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해준 점에서 평가할만한 하다. 지난 대선과 정부들에서 제기된 굵직한 공약인 문화수도, 인공지능 창업도시, 에너지 공대, 복합쇼핑몰 등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 지역 이슈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포착하여 위기의식을 고취한 것도 시의적절했다. 다만, 지역전략산업 발굴은 후보자의 뭉치기에 지자체가 공약 채택을 읍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의 접근은 이상적인 말이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뉴스 후반부에 나왔던 광주광역시 40개 공약과제를 비롯해 공약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주요 정책들에 관해서는 대담이든 탐사든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는 이 공약과제의 소개는 물론 비판과 대안 제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대선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광주문화방송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뉴스인 “국가AI데이터센터”의 경우 예산 미확보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결방안의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과 함께 광주광역시 국회의원들의 약속이나 다짐을 인터뷰로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세 번째 뉴스인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에 관한 뉴스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간의 상황 비교, 민간 소유 문화재의 경우의 문제점 등 짧은 시간에 해당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좋았다. 다른 뉴스에도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지자체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좀 더 집요하게 묻고 늘어지는 보도가 있었으면 한다.

- 유한별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 산 자여 따르라’라는 주제로 계엄부터 탄핵 결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이, 국민이 힘을 모아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5.18 희생자들을 ‘산자를 구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데서 가슴 깊은 먹먹함을 느꼈다. 역사가 부르면 언제나 기꺼이 응답하는 광장, 금남로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 시청자들의 반응이 유독 뜨거웠다. 두 번이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한 방송이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시위의 공간이었던 5.18민주광장이 빛과 음악이 함께하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온 5.18 민주광장의 풍경은 먼 길 돌아 제자리를 찾으려는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 같기도 해서 몽클했다. 방송을 보며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해 이번 시민들의 성공 경험이 빛나는 내일로 돌아오길 기원했다. 알차게 정치, 사회 이슈는 물론, 놀거리, 먹거리, 유용한 정보까지 담아내며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회가 된다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도 다루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주 위원 : -대표 여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테마기행 길>이 광주 고려인 마을을 조명한 방송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역사적 통찰과 공동체의 감동을 함께 전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잊힌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알리고 고려인 후손들의 생존력과 연대의 힘을 감동적으로 전달했다. 고려인 문화관, 전통 의상 체험, 특화 거리 등 마을 곳곳의 문화와 관광 자원도 풍부하게 소개되어 광주의 다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처럼 역사와 문화, 인물과 장소가 유기

적으로 연결된 스토리텔링은 <테마기행 길>의 큰 강점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공동체나 숨은 역사 현장을 지속 발굴해 시청자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고려인 마을을 교육과 체험 콘텐츠로 확장하는 후속 방송이나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지역 중심 보도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겠다. 대선은 국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지만, 그 영향은 지역사회에도 직접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광주·전남 지역의 고유한 현안인 청년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의료·교통 인프라, 산업전환 문제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보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또한 언론이 선거 의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들이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제안 의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청자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나 청년층을 겨냥한 기획물 등을 통해 대선의 핵심 쟁점과 유권자의 영향력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면 좋겠다.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층이 대선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형식과 채널을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방향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숙희 부위원장 : -기후환경 위기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접한 남해안 해역에서 발견된 이례적 어종들은, 우리에게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과거에는 서식하지 않았던 따뜻한 해역의 어종들이 남해안에서 잡히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가 바다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또한,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은 단지 산림 자원 훼손을 넘어, 주거지 위협,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공공안전의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단순한 감시와 진화(鎭火)를 넘어서,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 'DC 얼라이언스 즉, 직류 전력 기반 연합체이다. 직류(DC) 전력 시스템은 기존 교류(AC) 방식 대비 전력 손실이 적고,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 저감 측면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직류 배전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설계하고,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기술을 구축 중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 사용 방식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운영에 대한 철학적 전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을 더 많은 국민이 알고,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넘어, 기술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조명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 장은백 위원 : -인수위원회도 가동하지 못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각 당의 공약 생산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공약을 만들어 각 당에 전달해서 대통령 후보자 공약의 우선순위를 점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당위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방송에서는 지자체가 공약에 포함할 정책을 얼마나 개발했고, 이 내용들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공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약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공약에 들어가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광주광역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도시, 전남의 경우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주 공약에 포함할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지자체에서 공약에 넣으려는 주요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내용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3월 17일, 24일 <광주MBC 보다> 프로그램의 후반부 약 15분간에 방송된 내용은 최근 윤석열 계엄 사태를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과 연결 지어 해석한 시도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이어

지고 있으며, 어떤 도전 앞에 놓여 있는지를 성찰적으로 풀어낸 구성이 좋았다. 4월 7일에는 지방 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짚었다. 최근 화천 지역에서 소아과를 포함한 의원 10여 곳이 폐업하며 젊은 공중보건직의 이탈까지 이어진 상황은 지방 의료의 현실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혈당 500 이상을 발견한 어르신 사례는 지역 보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료 공백 문제를 일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기획보도 시리즈로 다뤄주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료 취약지 선별검사 체계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광주MBC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공되는 'TV 다시 보기' 목록에 방송 날짜와 간단한 제목을 함께 표기해주시면 좋겠다.

- 정희 위원 : -4월 8일 방송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프로필 소개 중,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대 나온 사람이 경제기획원에 1명뿐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명이라도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4월 13일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출범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호남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호남이 전기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많은 기업이 전 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

-4월 10일 <시사용광로>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사회는”이라는 프로그램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토론 내용 중 권력구조 개편 관련 내용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논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광장 금남로, 산 자여 따르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광주가 자랑스럽다는 강기정 시장님의 발언에 공감이 된다.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의 관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이다. 뉴스 진행자의 말투와 억양이 뉴스 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세련된 말투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며 제시한 의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쩔 수 없는 광주 특유의 말투나 사투리 억양을 얘기하는 것 같다. 제작진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끝.